

M램, SK하이닉스-도시바 공동생산

2016년 양산 목표로 공동개발 ... 기억용량 10배에 소비전력 대폭 감축

일본 도시바(Toshiba)는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2016년 모바일 기기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신형 반도체 메모리(M램) 양산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월1일 보도했다.

M램은 현재의 D램보다 기억용량이 10배 많아지고 탑재 모바일 기기의 소비전력을 2/3로 줄인 차세대 메모리로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M램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201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도시바와 SK하이닉스가 양산 개시를 서두르고 있다.

2011년 M램 공동개발에 제휴한 도시바와 SK는 2014년 4월-2015년 3월 시제품 출하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6년 한국에서 M램 양산에 착수해 보급에 성공하면 합작기업 설립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또는 일본에 1000억엔 정도를 투자해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M램은 데이터 처리속도가 빠르고 충전 전지 소형화도 가능해 안경, 시계 등 형태의 휴대 정보단말기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1/02>